



8월 국내 · 외 리콜현황 및 정책동향

국내 · 외 리콜현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5건(강제 25건) - 공산품 9건, 전기용품 16건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67건(강제 135건, 자발 32건) - 공산품 135건, 전기용품 32건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9건(자발 19건) - 공산품 10건, 전기용품 9건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5건 - 공산품 12건, 전기용품 3건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7건(자발 37건) - 공산품 12건, 전기용품 25건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건(자발 4건) - 공산품 2건, 전기용품 2건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9건(자발 19건) - 공산품 15건, 전기용품 4건 			

주요 사례

국가	제품명	제조사	리콜방법	리콜구분	리콜 주요원인
한국	휴대폰 충전기	POPPhone co.,Ltd.	수거, 교환	강제적 리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 거리 공간 거리 부적합 -절연 불량 및 부품 임의 변경 -모델명: T14015P12A01
미국	에어컨	Trane U.S. Inc., of Tyler, Texas	수리	자발적 리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전 위험 -모델명: RD 800 Electronic Digital Pianos
일본	유모차	주식회사 티렉스	교환	자발적 리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클(삼입축) 일부 중 사이즈가 다른 부품 혼입 -모델명: JOBU-14012KH
캐나다	LED 램프	Lonyung LED Lighting Company Ltd.	폐기	자발적 리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TLus 인증 마크 위조 -모델명: LY-T8L-1200-22W
EU (영국)	매트리스	Mothercare	환불	자발적 리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변화로 방화재 성능에 영향을 미침 -모델명: X7547, X7548
호주	수영조끼	Speedo Australia Pty Limited	환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낭이 분리되어 부력에 영향을 주므로 익사 위험 -모델명: 8-091949214, 8-091949490
뉴질랜드	열전달 장치	Weiss	교체	자발적 리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상황에서 열을 비효율적으로 보호하여 과열 및 화재 위험 -이 장치 관련 화재사고 발생 -모델명: FV602, FV603, FV652, FV653



제품안전 정책동향

안전한 제품을 위한 협력: 2014 국제 제품안전 주간

▣ 2014년 6월 16일~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5차 국제제품안전 주간 행사가 개최됨. (2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정책 제정자, 산업계, 소비자기관 등 관계자들이 제품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

▶ 행사 기간 중 주요 회의

- EU - 중국 - 미국 고위급 삼자 소비자 안전 회담
각 담당자가 참여하며 시장감시, 소비자제품 이력추적제, 소비자제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제고시키는 방법 등이 논의
- PROSAFE
유럽경제지역(EEA)의 시장감시당국 상부기구 PROSAFE는 시장에서 위험한 소비자제품의 제거를 위해 제품안전관리가 국가 간 강화된 협력과 함께 개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 국제소비자제품보건의안전기구(CPHSO) 국제심포지엄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의 제품 안전 규제자들 간 국제협력 주제에 초점을 맞춤
- RAPEX - 중국 작업반 회의
EU와 중국 규제자 간의 회의로 오늘날 규제자와 감시당국에 직면한 긴급한 과제 확인

호주 ACCC, 어린이 질식 위험을 확인하는 톨 개발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부모가 영유아의 질식 위험을 감지하도록 돕는 '질식 확인' 안전 무료 톨 공개

36개월 이하 유아들은 집 안팎의 다양한 제품으로 인한 질식 및 흡입 위험에 특히 취약함.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경우 기침반사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물건을 입에 넣어 질식할 우려가 있음. 물체를 삼킬 경우 체내 폐색 또한 유발 가능.

ACCC는 부모들에게 "질식 확인" 톨을 인쇄하여 집에 두고 어떤 물체가 질식 위험을 야기하는지 확인토록 독려. 질식 확인 톨은 원기둥 모양으로 36개월 이하 유아의 목 크기와 모양과 흡사함. 물체가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면 유아의 질식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즉시 유아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특히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지는 완구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일부 어린이용 완구가 대상 연령보다 어린 영유아들에게 질식 위험을 야기하므로, 사용 연령의 적합 여부 확인 필요





제품 위해 뉴스

제품 위해 뉴스 - 국내자료

☞ 열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	국제신문	'14.6.13
경북 상주시 소재의 한 닭 사육장에서 열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사육장 1동 전소)		
☞ 선풍기로 인한 화재	조선일보 등	'14.6.13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선풍기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13만원의 재산 피해 / 인명피해 없음) · 대구 남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음) · 전남 담양군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선풍기 과열로 화재 발생 · 대구 달성군 소재의 한 화학공장 기숙사에서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320만원의 재산 피해) 		
☞ 냉장고 ·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충북일보 등	'14.6.29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청주시 소재의 한 2층 주택에서 김치냉장고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68만원의 재산 피해) ·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냉장고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940만원의 재산 피해) · 충남 서산시 소재의 한 컨테이너에서 냉장고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350만원의 재산 피해) 		
☞ 휴대폰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경인일보	'14.7.4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원룸 주택에서 휴대전화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경인일보 등	'14.6.29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상가건물 1층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2,500만원의 재산 피해) · 대구 북구 소재의 한 여관에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 발생 · 서울 중구 소재의 한화빌딩 29층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직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이송) ·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70여명이 긴급 대피) 		

제품 위해 뉴스 - 국외자료

☞ 산요 전기, 선풍기 경년열화 주의 광고	국민생활센터	'14.6.17
<p>일본 산요전기(株), 17일 각종 신문 지상에 1977년 이전에 판매된 선풍기의 경우 전기 부품(모터, 코드, 콘덴서 등)의 열화로 발연·발화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중지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함.</p> <p>해당 업체는 '07년부터 여름철 신문 지상에 경년열화(經年劣化)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기제품의 성능이 열화하는 현상 제품으로 인한 사고 주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음</p>		



☞ 마사지기로 인한 질식사 주의 코도통신 등 '14.6.23

건강기기 메이커인 마토바 전기제작소는 23일, 가정용 롤러식 전기 마사지기 “RB 셰이프 업 롤러” 사용 중 의복이 휘말려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 해당 제품은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위한 기기이며, 목 등의 마사지에는 사용을 삼가하기를 호소함.

해당 제품은 돌기가나 있는 롤러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발바닥을 자극하기 위한 제품임. 질식사 한 여성은 롤러 부분의 천 커버를 벗겨낸 상태로 목 등의 마사지에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복이 말려 들어가 목이 졸린 것으로 밝혀짐. 해당 제품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1999년~2012년 사이 총 4건 발생.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위험한 USB식 충전기 단속 Dynamic Business '14.6.30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공정거래청(NSW Fair Trading)은 시드니 남서부에서 판매되는 위험한 USB충전기, 여행용 어댑터 등을 조사하여 회수함. 회수된 제품은 플라스틱 품질이 불량하고 필수 인증 마크가 부착되지 않아 호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임.

얼마 전 한 28세 여성이 USB식 충전기에 휴대폰을 꽂아둔 채 통화 중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공정거래청 담당자는 이와 같은 전기용품은 감전 및 화재 위험을 야기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 가구 낙하사고 주의 Post-gazette '14.7.8

지난 금요일 미국 알리퀴파에 소재한 한 가정에서 목재찬장이 넘어져 2세, 3세 자매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미국 CPSC는 '00~'11년 사이에 총 25,400명의 어린이가 가구관련 상해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발표. CPSC, 영유아 부모들에게 관련 사고에 대한 안전 유의사항 제공. 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 필요.

◆ CPSC 발표 자료

- 평균 2주에 한 번 가구 낙하 사고 발생
- '00~'11년 가구관련 사고
- 상해사고의 54%는 2~6세 아동
- 294명 사망 (연령대 : 생후 1개월~8세)

☞ 세븐일레븐 스마트폰용 충전기 발화 사고 발생 마이ナビ 뉴스 '14.7.9

세븐일레븐 재팬은 8일, 동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던 스마트폰용 충전기 '세븐라이프스타일 스마트폰용 충전기(TOPLAND사 제조)'에서 발화 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해당 제품 자발 회수 결정.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대상 제품은 약 224,100개에 이룸.
- 해당 제품은 '13년 6월부터 '14년 6월에 걸쳐 전국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됨.
- 세븐일레븐 재팬과 제조사업자는 전용 사무국을 마련하여 자발적 회수를 통해 상품의 환불을 추진할 예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간 제품안전 동향